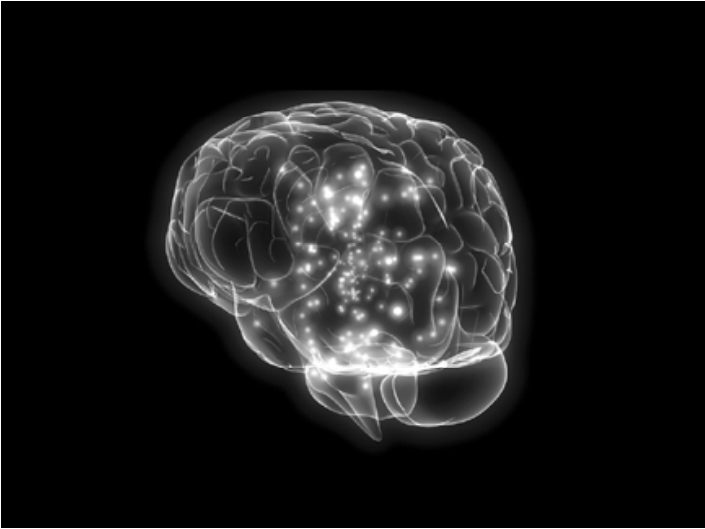


뇌와 ‘믿음’

| 라이오넬 타이거 · 마이클 맥과이어 | 김상우 옮김 |

종교의 핵심은 '분리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확장되어 전체가 되는 '체험'과 그 체험
마저 '넘어서는 데' 있지만, 그 과정에서 '믿음'이라는 에너지가 많이 관여합니다. 이
글은 주로 그 '믿음'이 어떻게 왜곡을 일으키는지 뇌의 진화과정을 통해 보여주기에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뇌는 편안함과 만족을 갈망한다

자연은 불필요한 반복과 일종의 기능적 과잉에 의존하고 있다. 자연은 당연시 여기는 것이 거의 없으며 항상 최악을 대비한다. 우리의 신체기관 대부분은 평상시에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운동선수들이 그 증거다. 운동선수들은 점수를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항상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뇌도 예외는 아니다. 뇌는 어떤 치약을 쓸지, 혹은 어떤 사람과 점심을 먹고 평생 친구로 지낼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위험한 일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뇌는 교육도 받는다(신앙의 본질과 형태에 대한 극히 세련된 논문이 많았던 17세기 유럽의 신학 대학들처럼). 바로 이 때문에 20세기 초까지 북아메리카 고등교육 시스템의 대부분이 확립되었다.

지루하고 짜증스럽게 되풀이되는 수많은 일상사를 만족스럽게 처리하거나, 뇌가 답할 수 없는 신학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뇌 주인의 행동은 증가한다. 그는 스릴러 영화나 책을 보거나 하이킹을 하거나 맹렬한 속도로 스키를 타거나 말을 타기도 하며, 그 외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닌데도 만족감을 주는 행동들을 한다. 뇌는 흥분과 변화를 필요로 한다.

뇌가 시도하는 변화는 뇌 자체를 편안하게 하고, 뇌의 몰입도를 줄여주며, 뇌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것들을 얻는 것이다. 뇌는 진화를 통해 획득한 사회 정서적 능력을, 그리고 힘겨운 일상사와(종종, 혹은 심지어 늘) 대조되어 보이는 사회 정서적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한다.

종교와 뇌의 관계는 달리기와 다리의 관계와 같다. 종교는 뇌를 위

한 사회 정서적, 제도적 역할을 한다. 훈련된 다리가 단거리 육상선수, 허들선수, 산책자, 에베레스트 등반자, 미하일 바리시니코프 같은 발레리노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듯, 인간의 뇌는 다양한 신앙, 미신, 점성술가, 종교, 신앙인 무리들을 만들어낸다. 사이언톨로지, 교황, 케냐로 떠난 아이오와 선교단, 모르몬 경전, 알라를 위한 자살폭탄 공격자를 만들어낸 것은 바로 '뇌'다. 그러나 뇌는 또한 평온하고 좋은 분위기의 마을회관, 교구, 사원을 만드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많은 곳에서 종교는 탄생과 결혼을 주관한다. 이런 곳에서는 개인에 뿌리를 제공하고 사회단체에 품위를 부여하는 종교적 관행이나 믿음을 유지하는 것과, 교양 있고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일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논의할 행동이나 현상 중 무엇이 좋고 나쁜지 나눌 수 없다. 무엇보다 논의의 중심이 인간 뇌를 보여주는 것인 한, 우리는 선악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행동이 똑같이 건전하고, 똑같이 올바르며, 똑같이 우아하고, 똑같이 지각 있으며, 똑같이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사전에 결론을 내리고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는 말이다.

뇌는 상상하고 믿고, 믿음에 따라 행동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경험하고 만질 수 있는 것'과 '상상하고 믿는 것' 간의 차이가 항상 분명하지는 않았다. 오늘날에조차 이 둘 간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 예로 '하늘을 나는 인간'이라는 관념이 처음 나왔을 때, 이 관념은 상상력의 결과로 생각되었지만 그 후 인간이 하늘을 나는 일이 실제 벌어졌다. 또 마녀의 경우처럼, 실제로 마녀가 존재한다

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입증된 기록에 따르면 런던, 프랑스, 세일럼, 매사추세츠에서 합법적인 마녀사냥이 있었다. 수많은 법정에서 마녀로 고발된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형을 언도한 후 불에 태워 죽이는 일이 실제 무자비하게 자행되었다. 최근에도 새로운 UFO 목격담, 새로운 음모 이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수 여 종의 새로운 가짜 치료법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어딘가에서는 특정 민족이나 국가, 종교 집단이 자신들이 우월한 인종이라거나 자신들의 신앙이 최고라는 상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결론, 절대적이고 영원한 위계질서에 대한 상상이 실제로 성공을 거둔 사례는 많다. 나치, 집단자살을 벌인 존스타운의 신도들, 자살폭탄 테러로 인디라 간디를 살해한 여인 등등.

‘실제로 현실이 되는 속성을 가진 상상’을 묘사하는 기술적 용어는 ‘귀속(attribution)’이다. 귀속이란, 유형(有形)의 사건과 경험뿐만 아니라 사상에 어떤 것의 의미나 원인을 돌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몹시 흔한 일이고, 우리 모두는 또 그렇게 하고 있다. 가령 사람들은, 어떤 특성은 천국에 귀속시키고 또 어떤 특성은 신에 귀속시킨다. 사람들은 몇 시에 아침을 먹고 아침 메뉴는 무엇이고 하는 식으로 자신의 내세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성 베드로 농담 시리즈는 보통 천국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부유층이 거주하는 교외 주택지 같은 장소로 묘사한다. 이곳에는 문과 문지기가 있고, 들어가려면 자격이 있어야 하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내부에는 아주 중요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살고 있으며, 언덕 꼭대기에는 모든 우두머리들의 우두머리가 거주하는 커다란 저택이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심각한 병에 걸린 아내의 건강을 위해 신에게 기도하기도 한다. 시간이 가면서 그녀의 병세가 호전되

면 신앙인은 어찌 됐든 자신의 기도가 아내의 병세를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아내의 병세가 호전된 것을 신에게 돌리는(귀속시키는) 것이다.

반대로 남편이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아내가 죽었다고 해보자. 이때 남편은 격한 슬픔 속에서도 어떤 이유 때문에 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데려갔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 두 경우에 있어서 위계적 영장류인 남편은 일이 그냥 벌어지는 법은 없다고 믿는 만큼이나 확신을 갖고 누군가가 이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에게는 위계질서가 있어야 하고 그 위계질서 안에서 제 역할을 하는 동인(즉, 신)이 있어야 한다. 대니얼 데닛의 말처럼 “우리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눈처럼, 실제로는 동인이 아닌 것에서 동인을 찾으려는, 매우 강력히 내재화된 경향이 있다.”

뒤에서 살펴볼 뇌의 또 다른 영역들은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실행한다. 그 과정이 매우 흥미로운 것이긴 하지만, 결국 뇌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과 같이 진화했으며, 그외에 무엇을 하든 우선 상상하고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한다. 믿음은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을 통해 예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는 현신적인 신앙인들에겐 분명한 일이지만, 방관자들은 어떻게 종교에 귀의하게 되는 것일까? 죽음을 앞두고 종교에 귀의하게 되는 것일까? 각 종교는 모두 매우 특별한 성격을 가진 믿음들의 총합이다. 꽃들이 저마다 다른 것처럼 종교도 각각 다르지만, 결국 종교는 모두 ‘믿음’이다.

앞서 강조했듯이 믿음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상상으로 만들어낸) ‘보다 높은 권위’에 대한 믿음과 (행동 지침 역할을 하는) ‘절대적이고 인격화된 도덕 원칙’에 대한 믿음이다. 모든 단체의 구성원들은 보다 큰 강력한 질서체계 안에서 협의에 의해 결정된 지위를 기꺼이 수락

하고, 또 수락할 수 있는 일종의 정치인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우주에 자신만 존재하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진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란 분명 어려운 일이다. 또한 사람들은 세속적인 최고 지도자보다 더 높은 존재는 우주에 없다는 생각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 취임하는 미국 대통령은 취임 선서 말미에 보통 “신이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한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란 거물조차도 누군가(즉, 신)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의 지도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즐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인 종으로 진화하게 되었는지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반사회적으로 살거나 사회 주변부에서 살려면 특별한 에너지와 재능이 필요하며, 무모함과 용기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역사가 시사하는 바가 그렇다.

뇌는 믿음을 분비한다

이 글의 논지는 뇌가 많은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뇌는 더 높은 힘, 우월한 권위, 그리고 보이지 않고 파악하기 어렵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힘을 인식한다. 뇌는 자신의 지각에 입각해 진리를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공증인처럼 뇌는 보증을 한다. 수많은 경우, 뇌는 실질적이고 지각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건만큼이나 열심히 상징적인 현상을 믿는다. 뇌는 믿음을 분비한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그런 믿음은 종종 행동의 기초가 된다. 이런 행동은 개인적으로 신앙을 준수하거나 일부일처제를 지키는 경우처럼 사적일 수도 있고, 가톨릭교회의 교류나 칼리프의 복원을 꿈꾸는 경우처럼 매우 사회적일 수 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뇌는 본래부터 믿음을 갖게끔 되어 있다.

실험에 따르면 종교적 생각이 거짓을 줄이고 낯선 사람에 대한 이타주의를 늘린다. 그러나 실험실에서 일어난 일이 실제 생활에서도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실생활을 관찰한 자료에 따르면, 일단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그와 관련된 많은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는 우리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를테면, 한 사람이 다른 행성에 생물체가 있다고 믿으면, 그런 믿음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그 믿음은 그에게 하나의 이론이 된다. 이와 유사하게, 천국이 존재하며, 천국에 가는 것이 지상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게 되면, 그런 믿음은 해당 종교인들의 행동을 다스리는 지침이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종교에 귀의한 사람은 대단히 많다.

믿는 것은 종교에 귀의한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고 그들에게 효능감을 주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믿고 면죄부를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불륜을 저지르지 않고, 특정 명절에는 단식을 하며, 특별한 말을 외칠 수 있는 것이다. 종교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베풀기를 원하는 만큼의 자원과 그들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만큼의 시간을 바쳐야 할 수도 있다.


인간의 노련한 뇌는 다양한 공포를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공포를 만들어내기까지 한다. 인간 뇌는 일련의 모호함에 직면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 분류한다.

우리는 불확실성과 알 수 없는 것에 직면한 결과 나타난 뇌 메커니즘의 일부를 살펴보았다. 불확실성과 알 수 없는 것에 직면하는 일은 모든 사람이 겪어 알고 있는 일상사의 특징이다. 우리는 또한 그런 일상사가 뇌와 뇌의 분비물, 그리고 뇌와 신체 과정의 상호작용에 어떤 화학적 변화를 초래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런 일상사는 육체적, 심리적으로 불쾌한 상태를 초래하는 스트레스의 일반적인 근원이다. 우리

주장의 핵심은 모든 사람은 뇌를 달램으로써 그런 불쾌한 상태를 벗어나려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인용한 많은 과학적 발견들은 어떤 경우엔 주간 단위로 수정될 것이다. 이는 과학이 가야 할 건전하고 필수적인 길이다. 그러나 과학적 발견들이 수정된다고 해서 핵심은 ‘뇌’라는 우리의 중심 메시지가 수정되지는 않는다.

근심과 공포를 관리하기 위해 뇌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뇌의 믿음 체계가 창조해낸 종교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종교에 대한 비난이나 찬성의 입장에서 제기한 것이 아님을 유념해주시기를 바란다. 단지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보편적이고 끈질기고 중요한 사실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판단적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도를, 즉 종교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을 강조하고자 한다. 종교의 본질과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찬반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논쟁에는 관심이 없다. (끝) 

- 이 글은 ‘신의 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라이오넬 타이거(Lionel Tiger)** | 러트거스 대학교 인류학과의 찰스 다윈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집단 속의 인간(Men in Groups)』 『제국주의적 동물(Imperial Animal)』(공저) 『쾌락의 추구(The Pursuit of Pleasure)』 『낙관론: 희망의 생물학(Optimism: The Biology of Hope)』 『수컷의 몰락(The Decline of Males)』 등 많은 베스트셀러를 썼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롤링스톤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뇌와 행동과학(Brain and Behavioral Science)』 등 많은 대중·과학 저널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저자 | **마이클 맥과이어(Michael McGuire)** | 미국 생의학연구재단 소장, 브래드쇼재단 및 그루터 법행태연구소 이사, 국제인류행동학회 이사로 재직 중이다. 『다윈주의 정신의학(Darwin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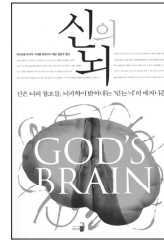
Psychiatry) (공저) 등 10여 권의 저서를 저술하고 편집했다. UCLA 정신의학 및 생물행태학 교수를 역임한 바 있으며, 과학 저널 「동물행태학 및 사회생물학(Ethology and Sociobiology)」의 편집인을 지내기도 했다.

역자 | 김상우 |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외과를 졸업하고 저널리스트 및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행복의 심리학』 『성격의 탄생』 『문명에 반대한다』 『내 인생 최악의 학교』 『워렌 버핏의 재무제표 활용법』 등을 번역했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신의 뇌

신은 뇌의 창조물 뇌과학이 밝혀내는 믿는 뇌의 메커니즘



저자 라이오넬 타이거, 마이클 맥과이어 | 역자 김상우 | 출판사 와이즈북 | 정가 15,800원

뇌과학이 신의 수수께끼를 풀다

이 책은 신에 대한 믿음을 작동시키는 뇌를 들여다봄으로써 인간 믿음의 실체를 규명한 책이다. “신이 뇌의 창조물이라면 신의 뇌는 인간의 뇌”라는 창조적인 주장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뇌과학을 기초로 한 치밀한 과학적 논증이 뒤따른다. 뇌와 믿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뇌와 믿음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뇌라는 놀라운 기관이 어떻게 종교를 유지, 발전시켜 왔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뇌-종교의 관계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